

# 소주병·연탄재가 왜 한라산에?

### 성판악 인근 숲속에서 쓰레기 무더기 발견 확인된 현장 3곳... 땅 파낸뒤 쓰레기 매립 과거 사용했던 물품... 30년 이상 방치 추정

3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한라산에서 발견돼 당국이 정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한라산 성판악 버스정류장에서 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숲 속에는 빈병과 연탄, 비닐, 캔 등 쓰레기가 무더기로 뒤덮여 있었다. 쓰레기 중에는 소주병이 있는가 하면,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라면과 캔음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발견을 복측으로 조금 더 옮기니 이번에는 아예 쓰레기를 땅에 파묻은 흔적이 2곳이나 더 발견됐다. 종류가 같은 것으로 볼 때 동일 인물이 이 곳에 쓰레기를 가져와 투기·매

립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을 제보한 백모(63)씨는 “한라산 등반을 위해 성판악을 찾았다가 버스 정류장 인근에 다량의 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며 “한라산은 국립공원인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 투기가 가능한 일이나. 한라산 내에 또 다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장을 확인한 제주도자치경찰과 한라산 국립공원은 정확한 쓰레기 규모와 출처 확인에 나섰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쓰레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약 30년 전에 버



한라산 성판악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견된 쓰레기 더미. 소주병과 비닐 등 수십년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려진 것으로 추정돼 범인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쓰레기 규모는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잘잘못을 따지기는 우선 관련 부서와 논의해 빠른 시간 안에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처리된 쓰레기 규모는 2008년 154t에서 2016년 34t, 2017년 52t, 2018년 34t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관리 소홀로 파래로 뒤덮여 청정상태를 잃은 용천수인 어른물(사진 왼쪽)과 금둔지물.



김현석기자

# 파래 천지에 악취... 주변은 쓰레기 범벅

### 삼양·화북 일대 용천수 관리 소홀로 '청정' 이미지 잃어

15일 제주시 삼양동 내 오래된 용천수 터인 '셋소리물'. 마을 주민들의 식수와 빨래터로 활용됐던 이곳은 운통 파래로 뒤덮여 있었다.

그 옆에 자리를 잡은 노천목욕탕 입구에는 낡고 녹슨 선박 트레일러가 방치돼 있고, 노천목욕탕 안도 파래로 뒤덮여 섞여들어가는 파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삼양해수욕장을 거쳐 화북동으로 들어가 만난 '고랫물' '쇠물' 용천수

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서쪽으로 100m 가량 떨어진 '금둔지물'은 소주병, 맥주 캔, 담뱃갑, 비닐봉지 등이 날브러져 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주민 강모(54)씨는 “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뒤처리도 제대로 안하고 가는 통에 아침이면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며 “매일 아침이면 나와 이 주변 쓰레기 수거를 몇년째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금둔지물에서 만난 이모(21)씨도 “어렸을 때는 이곳에서 물놀이도 하고 놀았지만 지금은 수질도 안 좋고 파래로 뒤덮여 들어갈 엄두도 안 난다”고 말했다.

용천수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리 주체인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제주도수자원본부

## 변영로 20~21일 부분 통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종점과 변영로를 2019년 7월 말까지 연결·개통하기 위한 봉개교 상부 빔거치 공사를 오는 20~21일 이틀간 시행하기 위해 변영로 일부구간에 대해 차량을 부분통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변영로 차량통제구간은 봉개교차로에서 와흘교차로까지 대략 5km 정도이다.

尹성준기자

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내 전체 용천수 1025개소 가운데 매립·멸실되거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곳은 무려 364개소에 달한다. 전체 용천수의 35.5%가 사라졌고, 현존하는 용천수는 661개소에 불과한 것이다.

박원배 제주연구원 박사는 “행정에서 용천수 정비사업 등을 하고 나면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정비 부분은 해당 읍면동과 마을회가 서로 협력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마을회와 환경 정비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석기자

# 장애 유형 고려안된 '장애등급 개편'

### 기존 1~6등급서 '중증'·'경증' 2단계로만 구분

## 도 어제 제도 설명회 개최

기존 1~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 2단계로만 구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된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장애등급을 정하는 '종합 조사표'에 장애 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15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장애인단체와 시설,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길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과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이 강연에 나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장애등급이 의학적 장애 상태에 주로 의존하면서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등급은 기존 1~6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에 따른 중증과 경증, 2가지로만 구분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예홍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종합 조사표의 항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며 “예를 들어 ‘옷 갈아입기’라는 항목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옷의 색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밖에도 목욕하거나 식사하기 항목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양 관장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히려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며 “장애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온 정길순 서기관은 “종합 조사표를 장애 유형별로 구분해야 된다는 의견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있다”며 “조사표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통한 조사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불법숙박업소 단속 월 1회 → 월 2회

### 제주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제주시는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맞아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제주소·자치경찰단·제주관광협회)과의 합동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농어촌 민박으로 1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등은 불

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미분양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 창고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숙박객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6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52분쯤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주변을 지나던 지적장애 2급인 B(19)양을 집으로 데려온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해 8월 29일 서귀포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9%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2019년도 晉州姜氏濟州道宗會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꽃향기 그윽하고 신록이 우거진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현종제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도총회의 재산 매입 및 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5월 19일(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진산제주회관 3층 (월랑초교 정문 동편100m)
-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도로확장에 따른 수용토지 보상협의 건
  - 제2호 의안 : 토지 매입의 건
  - 기 타 : 제9회 제주도진주강씨 한마음 축제 설명회
- ※ 개별통지를 생략하오니 양지하시고 참석 바랍니다.
- 연락처
  - 총무부장 영택 ☎ 010-3690-6696
  - 재무부장 영도 ☎ 010-6789-1166
  - 총무국장 동범 ☎ 010-3693-3234

**진주강씨제주도총회 회장 강원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소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그랜드보청기**

**가정의 말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상품들 훈저 전화 주셔서!**

**최대 60% 파격 할인**

-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